

박성현, LPGA투어 신인왕 확정

국내선수 11번째 수상... "이번 수상 계기로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

‘슈퍼루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수상을 확정하며 미국 진출 당시 목표 중 하나를 달성했다. LPGA 사무국은 19일(한국시간) “박성현이 오늘 수학적으로 2017년 롤렉스 올해의 신인상 수상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박성현(1413점)은 신인왕 포인트에서 2위인 엔젤 인(미국·615점)을 798점차로 따돌렸다. 이 점수차는 1996년 신인왕인 캐리웹(1030점차)과 1998년 신인왕 박세리(929점차)에 이어 투어 사상 세 번째로 큰 점수차다. 이로써 박세리(1998년), 김미현(1999년), 한희원(2001년), 안시현(2004년), 이선화(2006년), 신지애(2009년), 서희경(2011년), 유소연(2012년), 김세영(2015년), 전인지(2016년)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11번째 신인왕 수상자가 됐다.



박성현은 “올 시즌 목표 중 하나였던 신인왕에 올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평생 한번 밖에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현은 7월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뒤 8월 캐나다 여자 오픈에서 2승째를 달성하며 2개국 내셔널 타이틀을 차지했다. 현재 세계랭킹 2위까지 도약하며 랭킹 1위 유소연(27)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신인왕을 확정된 박성현이 상금왕과 평균타수, 올해의 선수까지 석권하면 1979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9년 만에 대업을 달성하게 된다. 박성현은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열리는 오는 11월16일 2017 롤렉스 LPGA 어워드 때 신인상을 받게 된다. 한편 박성현은 이번 주 대만에서 열리는 ‘스윙잉 스킨즈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시즌 3승과 함께 세계랭킹 1위에 도전한다. /뉴시스

트와이스, 일본 첫 오리지널 싱글 오리콘차트 1위



트와이스는 오는 30일 국내에서 데뷔 2년 만에 정규 1집 '트와이스타그램(Twictagram)'을 발매한다.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인기 불풍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전날 일본에서 공개한 첫 오리지널 싱글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이 오리콘 일간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다. 원 모어 타임은 5만1581장이 팔렸다. 2위에 오른 일본 아이돌그룹 배직 프린스와 무려 4만 3000여장의 격차가 난다. 음반 첫 주문량도 30만장에 육박한다. /뉴시스

이와 함께 아이튠즈 종합 앨범차트에서도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나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등 10개 지역에서 1위에 올랐다. 트와이스는 이미 일본에서 데뷔 때부터 주목 받았다. 지난 6월28일 일본 데뷔 베스트 앨범 '#트와이스(TWICE)'로 오리콘 일간 앨범차트 2위 진입 후 5일 만에 1위에 올랐다. 이 앨범은 27만장이 판매됐다. 이후 현재에 K팝의 열기를 재접화할 걸그룹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트와이스는 오는 30일 국내에서 데뷔 2년 만에 정규 1집 '트와이스타그램(Twictagram)'을 발매한다. 타이틀곡 '라이키(Likey)'로 활동한다. /뉴시스

3차전 명운, 두산 보우덴-NC 해커 어깨에 달렸다

오늘 KBO리그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3차전 두 외국인 선수 격돌

코리아시리즈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두산과 NC의 두 외국인 선수 가 격돌한다. 두산과 NC는 20일 오후 창원 마산구장에서 벌어질 2017 타이어뱅크 KBO 리그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3차전 선발로 각각 마이클 보우덴과 에릭 해커를 예고했다. 양팀은 2차전까지 1경기씩을 나눠가지며 1승 1패로 균형이 이른 가운데 3차전 승부를 앞두고 있다. 2차전 대승을 거두며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한 두산은 보우덴을 앞세워 시리즈 역전을 노린다. 지난해 18승 7패 평균자책점 3.80으로 두산의 막강 선발 '관타스타'의 한축을 담당했던 보우덴은 올 시즌 17경기 출장에 그치며 3승 5패 평균자책점 4.64를 기록했다. 부상으로 전반기 4경기에만 등판했지만 후반기에는 몸상태를 회복하며 13경기에 출장했다. 9월부터 정규시즌 종료까지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3.81로 작년 구위를 회복한 점이 고무적이다. NC를 상대로는 1경기에 등판해 승패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선발로 나서는 두산 베어스 마이클 보우덴(왼쪽)과 NC 다이노스 에릭 해커.

없이 6이닝 7피안타(1피홈런) 3탈삼진 2실점했다. 작년에는 평균자책점 1.17로 강했다. 이에 맞서는 해커는 NC의 에이스다. 올 시즌 28경기서 12승 7패 평균자책점 3.42의 성적을 올렸다. 롯데와 준플레이오프에서는 1차전과 5차전에 선발 등판, 13⅓이닝 1실점

로 호투하며 시리즈 MVP를 차지했다. 기세가 등등하다. 올 시즌 두산은 상대로 2경기에 선발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2.77을 거뒀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호투하고도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단단히 버리고 있다. /뉴시스

우승후보 KCC, 충격의 개막 2연패

프로농구 전주 KCC가 우승후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개막 2연패 늪에 빠졌다. KCC는 18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92-98로 패했다. 개막전에서 최하위 후보 원주 DB에 일격을 당한 KCC는 2연패에 빠졌다. KCC는 득점기계 안드레 에밋을 비롯해 전태종, 하승진, 이현민, 송교창, 찰스 로드 등 검증된 자원에 역대 자유계약(FA) 최고액 9억2000만원의 사

나이 이정현이 합류했다. 당연히 우승후보 1순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인상이었다. 에밋 중심의 운영이 여전하다. 또 이정현은 무릎이 좋지 않고, 로드는 비시즌 동안 부상과 결혼 등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전자랜드는 기본 좋은 반전에 성공했다. 한 경기 만에 제 모습을 보여줬다. 몰트리는 장신임에도 적극적인 속공 가담과 미들레인지 슈팅으로 KCC의 골

밑을 공략했다. 31점 12리바운드로 폭 발력이 대단했다. 전자랜드가 1순위로 선발한 가드 조쉬 셀비도 25분22초 동안 22점 4어시스트를 기록, 옛 동료 에밋과의 자존심 대결에서 관정승을 거뒀다. 하승진(KCC)의 약점인 기동력과 수비 범위를 노려 미들레인지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한 게 주효했다. KCC의 에밋은 34점을 올렸지만 개막전에 이어 또 팀이 지면서 웃지 못했다. 전자랜드는 91-88로 쫓긴 4쿼터 종료 28초를 남기고 셀비의 패스를 받은 김상규가 3점포를 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뉴시스

'범죄도시' 승승장구... 400만명 돌파

마동석·윤계상의 범죄 액션 영화 '범죄도시'의 '빈칸'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는 18일 하루 전국 1074개 상영관에서 4937회 상영되며 12만8394명을 모아 1위를 지켰다. 개봉 18일 만의 400만 관객 고지 돌파다. 개봉 당일 '범죄도시'는 함께 막을 올린 이병헌·김윤석·박해일의 대작

사극 '남한산성' (1124개 관·5283회)은 물론, '킹스맨:골든서클'(1014개 관, 4634회), '하이 캔 스피크'(716개 관, 2591회)에도 못 미치는 상영 규모(600개 관, 2395회)라는 '물욕'을 겪었다. 이처럼 극장들이 이 영화를 흥대한 것은 가족 관객 중심인 추석 극장가에 어울리지 않는 '형소년' 관람 불가 등급, 주연배우 마동석·윤계상의 약한 티켓 파워, 이 영화로 늦깎이 데뷔하는

강윤성(46) 감독의 낮은 네임 벨류 등 약점이 차고도 넘친 것도 있었으나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작 불패라는 선입관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 관람객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입소문이 흥행 광풍으로 돌아와 '범죄도시'는 지난 7일 '킹스맨'을 끌어내리고 2위로 올라섰다. '범죄도시'의 400만 돌파는 극장가 관객 절벽 시대에 여러 경쟁작과 온갖 약점을 돌파하며 세운 기록이어서 더욱 대단하다는 것이 영화계 평가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